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진화의 신학적 함의

-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media)는 진정 새로운 메시지(massage)인가 -

전 철 박사(한신대학교)

1. 들어가며

21세기가 빚어낸 중요한 성과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이를 약자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사용하기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상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을 긴밀하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며 대표적으로 트위터¹⁾, 페이스북 등이 있다. SNS 환경은 모바일 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화 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존재양식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소통 방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교회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존재양식을 나름의 교회적, 선교적 방식으로 수용하고 체화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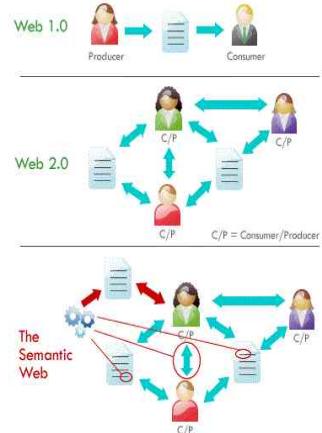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방식은 무엇일까. 교회는 세계 안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세계를 넘어서고, 세계의 개신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공적 기관이다. 물리적 세계의 본성은 분화(differentiation)와 발생(development)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에 비해 교회의 본성은 이 물리적 세계의 본성을 바탕으로 분화를 넘어서는 현실세계의 통전(integration)과 수렴(convergence)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교회는 오늘날 현존하는 물리적 세계와 문화의 본성을 교회가 받아 안고 새로운 방식의 세계상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럴 경우 오늘날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를 교회가 진단하고 성찰하는 것은 시대와 호흡하는 교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21세기 기술 문명과 문화가 구체화한 중요한 특징인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구체적인 층위들을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화가 지닌 신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웹 2.0과 웹 3.0에 대한 유형적 구분을 시도할 것이다(2). 두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기능과 본질을 간략하게 성찰할 것이다(3). 세 번째 이러한 정보 소통의 기술적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론적 고민을 창발성의 존재론의 관점에서 다를 것이다(4).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신학적 분석과 그 의미를 다를 것이다(5).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6).

1) 트위터(twitter)는 웹사이트 혹은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최고 140자의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블로그+문자’ 서비스이다.

2. 웹 2.0 시대와 웹 3.0 시대

구분	Web 1.0	Web 2.0	Web 3.0
의사 소통	일방적	고정된 공간(포털)에서 양방향	자유로움
콘텐츠	콘텐츠 생산 주체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	사용자 스스로 참여	웹 자체가 지능화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검색	검색엔진 내부에서만 가능	여러 사이트에 있는 자료의 개방(Open API)	사용자맞춤형 검색



3. 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언어적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글로벌한 소통 및 인맥형성 시스템이다. 특히 전통적인 통신망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지역적이며 언어적 한계를 완전히 탈피한 방식을 제공한다. SNS를 통하여 타 문화와 타 언어와 타 국가에 있는 인간과 소식과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서비스는 한 사용자의 정보 취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용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발산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서로 만나고 소통해야 할 사람들은 특별히 사용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현실적인 소통의 복잡성(complexity)이 완화되고 감축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는 서로가 <친구>(Friend)로서 명명되어진다. –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칭한다(요한복음 15장 15절) – 이를 통하여 상호 소통과 대화와 사귐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며 평등하고 친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SNS 서비스 자체가 낯선 타자들과의 현실적 관계의 단절을 넘어서서 새로운 방식의 만남과 연결을 지원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많이 매복되어 있다. 스승과 제자, 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시민이 페이스북에서는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수평적 관계와 소통과 인격적 교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은 어떻게 가능할까.

4. 정보, 창조, 창발성의 디지털 시대

1) 다자(Many), 일자(One), 창조성(Crea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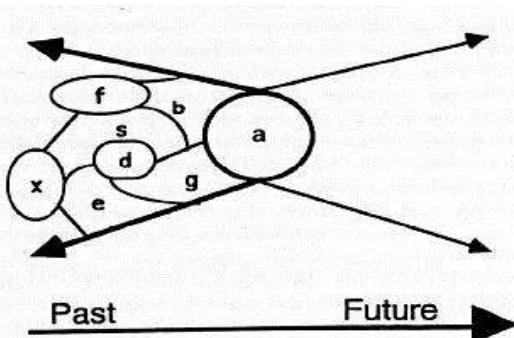


Diagram One: An Actual Entity

Stephen T. Franklin, "God and Creativity: A Revisionist Proposal within a Whiteheadian Context", in *Process Studies*, 237-307, Vol. 29, Number 2, Fall-Winter, 2000

of the ultimate)의 범주이다.²⁾ 이것은 존재이기보다는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설명하는 진술이며 모든 진술의 근거가 되는 진술로서 기능한다.³⁾

요는 우리의 현실세계는 철저하게 다자성(disjunction)의 세계이며, 이러한 다자성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일자적인 가치(conjunction)가 출현된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다자에서 출현한 일자는 어떠한 다자적 지평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unique) 가치이기에 전적인 새로움(novelty)로 불리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모든 세계는 바로 이러한 다자적 존재 양상 속에서 일자적 새로움이 출현하고 다자에서 일자의 새로운 출현의 과정을 창조적 과정(creative process)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후 새롭게 논의되는 창발성이론(theory of emergence) 그리고 구조화된 다원주의(structural pluralism),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식론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로 기여된다.

2) 체계, 환경, 아우토포에시스

20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창조성의 존재론(ontology of creativity) 혹은 창발성의 존재론(ontology of emergence)이 문명의 변화를 진술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설들이라고 한다면, 20세기 후반에서부터는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이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와 인간인지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조명하고 가설화 한다. 그 여러 가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시스템이론가인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의 체계이론(Systemtheorie)이다.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은 화이트헤드가 독특하게 구상하였던 '사

물리적 세계와 문화의 본성을 해명하는 여러 가설들이 존재한다. 그 여러 가설 가운데 오늘날의 현실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해명한 가설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영국의 수학자와 형이상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가 제시한 <다자>many, <일자>one, <창조성>creativity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 일자, 창조성은 화이트헤드의 주저인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1929)에서 구상한, 우리의 경험세계를 설명하는 수십 개의 범주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든 범주를 작동하게 하는 궁극자의 범주(the category

-
- 2)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orrected edition von David Ray Griffin u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20-22.
 - 3) Chul Chun,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Alfred North Whiteheads frühe Naturphilosophie (1915-1922) - eine Rekonstruk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22.

회'(society)라는 독특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인간 삶의 현실적 지평에 적용하고 확대하여 경험세계를 설명하는 가설의 영역으로 확대한다. 그의 이론은 사회체계이론으로 불리울 수 있는데 물리적 세계의 정보 발생의 패턴에 대한 분석의 관점에서 <체계>(System)와 <환경>(Umwelt), 그리고 <아우토포에시스>(autopoiesis)라는 세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체계이론에 의하면 모든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생존한다. 여기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그저 환경에 의해 수동적인 양상을 반영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오히려 체계는 환경과는 무관한 자족성을 지니며, 체계는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특정하게 구축하고 체계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을 자기화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체계이론에 의하면 모든 체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내적인 역사에 의거하여 환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감축(Reduktion)한다. 즉 체계의 환경에 대한 태도는 감축의 양식이다. 바로 여기에서 체계와 환경의 심연, 그리고 체계의 환경에 대한 자기생성(autopoiesis)의 특징이 구현된다. 그렇다면 감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감축은 외부의 무한한 정보를 내부의 체계적 완결성에 의거하여 단순히 정보를 특정하게 추상화 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체계의 역사에 의거하여 창출해 낸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즉 감축은 새로운 정보의 창출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적으로 체계와 개체와 시스템의 자족성과 그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가 각자의 환경을 자기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은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존재론과 가치의 급속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보는 특정한 소수의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일방적인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적 관계로만 존재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웹 1.0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이 웹이라는 공적 플랫폼의 확보를 통해서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또한 정보의 생산자로 병행하여 존재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존재양식에 저항하는 개인적 미디어(홈페이지, 블로그)의 확산은 전통적인 웹 1.0의 특징이 현실을 더 이상 반영 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⁵⁾ 이렇게 웹 2.0은 쌍방향적인 정보의 송수신을 통하여 새로운 층위의 정보범주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기여를 한다. 즉 모든 각자의 개별적 시스템은 그 자체의 정당성을 지니며 환경에 대한 감축/해석의 과정 속에서 각각이 미디어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웹 3.0은 각자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묶어내는 플랫포함이 교차(crossover)된다는 점이 2.0과는 다른 독특한 지점이다. 즉 인터넷 블로그의 개별적 정보생산/소비 시스템과 이동통신 SMS의 개별적인 정보생산/소비 시스템의 두 접점을 하나로 융합시켜버린 점이 웹 3.0 미디어의 특징이다. 웹과 이동통신(many)은 각자의 두 개별적인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one) 안에서 세련되게 창조적으로 융합(creativity)된다.

4)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242-248.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각자의 파편화된 가설과 지식(hypothesis)을 웹 플랫폼을 통하여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여 논문의 명백한 오류(fact)를 밝혀냈다는 것은 전통적인 웹 1.0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진화의 신학적 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베이트슨, 마투라나(Humberto R. Maturana, 1928-), 바렐라(Francisco Varela, 1946-2001)의 네트워크 이론에 이미 포착된 것들로 보여진다.⁶⁾ 단지 그 개념(concept)이 어떻게 기술(technique)로 구현될 수 있는가가 문제였을 것이다. 언제나 이론은 기술을 앞선다. 그렇다면 SNS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고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라는 시스템(system)과 종교적 가치(religious value)가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가 에너지의 세계라면 후자는 정보의 세계이다. 전자가 사실의 세계라면 후자는 가치의 세계이다.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작동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SNS 시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핵심 실마리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첫째, 소위 소통의 관점에서 현실을 이해하는 세 가지 범주 – 에너지, 패턴, 정보 – 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정치-사회적 명함에 대한 고찰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문명에서의 종교적 감수성의 의미를 성찰할 것이다. 넷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교회의 과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정리하며 종합적으로 네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에너지, 패턴, 정보

정보제공과 수용의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비대칭성을 파괴한다. 페이스북은 내 삶의 사소한 정보가 타자에 의하여 공유되고 급속도로 전파, 확장된다. 나는 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타자는 나의 정보를 소비하며, 동시에 나 또한 타자의 정보를 소비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전통적인 정보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 relation)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긴밀한 그물망 속에서 잠식된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정보 전달과 증폭의 효율성을 극 대화 한 측면이 있지만 그 서비스 자체가 특정한 정보(Information)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소통의 관점에서 현실을 조명한다면 정보(information)/패턴(pattern)/에너지(energy)라는 세 가지 범주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 특정한 정보를 생산하는 거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의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 계(energetic system)를 새롭게 구축한 네트워크 패러다임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 1904-1980)의 통찰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양은 패턴을 결정하지 않는다”(Die Quantität determiniert nich das

6) 특히 그레고리 베이트슨에 관하여 전 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철학연구』 제86집 (서울: 철학연구회, 2009. 8), 249-274. 참조.

Muster)⁷⁾라는 흥미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 즉 양이 아무리 높은 밀도와 복잡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변화를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을 베이트슨은 지적하였다. 오히려 역이 가능할 뿐이다. 다시 말하여 아무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위 양의 세계이지 그것 자체가 패턴과 정보의 영역 자체를 규정하거나 교란시킬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특정한 사건에 관한 정보가 엄청난 개체적 그물망을 통하여 빛의 속도로 ‘소통’되어도 우리는 그것 자체를 새로운 정보의 근본적 ‘탄생’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여 정보 자체가 새롭게 혁신적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소통과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2)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정치-사회적 명암

흔히들 불리우는 88만원 세대 만큼 SNS를 격렬하게 사용하는 계급도 없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분명 젊은이들의 감각과 친화력이 있다. 그러나 세련된 SNS가 88만원짜리 청춘들의 감옥을 깨는 망치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심금의 자본과 권력의 네트워크는 엄연히 존재한다. 시대가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방랑 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일정정도 직조한 계급, 자본, 권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성의 빛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함의하는 바를 민감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SNS가 진정 88만원 세대를 억누르는 감옥을 파괴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면 SNS는 그 얼마나 슬픈 환영일 것인가. 하물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감옥은 쉽게 깨질 수 없는 공고한 덫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SNS를 통하여 눈치 채고 오히려 청춘들이 절망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SNS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치체제로서의 공산당과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습합되어 있으나 소셜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봉쇄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페이스북을 통제한다. 즉 중국은 페이스북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자국 내에 허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많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트위터를 폴리터(Politter)로 활용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중앙 서버 중심에서 개별적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정보소통이 활성화 되고 정보마당이 이동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권력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정보독점의 구속으로부터 개인은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링컨의 통찰을 잘 관찰시킬 수 있는 진보적인 네트워크 환경이다 :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다.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구현되는 국내 모바일 통신 환경에 지불하는 개인의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SNS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구속성’은 극복되었으나 개인의 ‘경제구속성’은 오히려 더욱 강화된 측면

7) Gregory Bateson, *Geist und Natur. Eine notwendige Einheit* (Frankfurt: Suhrkamp, 1982), 71-72.

을 우리는 당혹스럽게 대면한다.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는 언제든지 자본과 기업이익 극대화의 컨텐츠로 악용될 수 있다. 구글은 개별자들 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만 동시에 개별자의 정보들을 구글에 수집하고 축적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점에서 심금 네트워크를 반영하는 유령의 운명과, 심금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운명 사이에서 아직은 방황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진보와 해방의 물리적 미디어로 진단하곤 한다. SNS는 중동의 민주주의 혁명인 쟁쟁한 혁명의 동력이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사생활 노출 및 정보의 복잡한 왜곡으로 인하여 미국의 클레멘티 학생과 한국의 송지선 아나운서는 투신자살을 하였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치-경제-사회적 수행에 관한 분석은 보다 비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 미디어 그 자체는 메시지이다. 소셜 미디어는 소위 정보 집중화와 권력화를 파괴하는 방사적이며 유기적 정보소통의 그물망을 확보한다. 이러한 그물망 속에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는 더욱 더 정보의 비대칭성을 파괴하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권력의 본질을 통찰한다. 그러나 여전히 SNS 미디어 그 자체는 ‘소극적인’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디어는 ‘특정한’ 메시지의 변환과 전송의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점에서의 핵심 문제는 ‘어떠한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느냐의 문제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학적 문제지평이 연결된다. 특히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로고스(logos), 세계의 물리적 질료로 구현되며 세계를 구현해내는 소위 형상과 고로스(logos)의 문제를 신학은 고민해왔고 SNS의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문명과 종교적 감수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인간과 세계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며 발현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현상에 대한 과정의 의미부여는 아직은 설부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이 부각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람들 사이의 삶의 공간을 링크하고 중중적으로 묶고 교차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 기독교적 사유, 종교적 메시지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가? 라는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다. 소위 소셜 네트워크의 디지털 환경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담론환경과 어디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교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유형적으로 이 양자의 관계, 즉 ‘디지털’ 문명과 ‘고태적’ 종교체계를 접목시키는 관행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될 수 있다. (1) 디지털 문명의 변화 앞에서 종교는 그 존재양식을 새롭게 수정하고 시대에 적응(adapt)해 나아가야 한다. (2) 디지털 문명의 변화 앞에서 종교는 그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suggest)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대의 변화와 종교적 감수성은 그리 큰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메시지의 현실적 재현(re-ligare)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태도는 그렇게 섬세하게 분화될 필요가 없는 종교의 원형적 요소들이다. 적응이 세속화의 태도라면 제시는 구도적 태도이며 종교는 성과 속을 끊임없이 잇대는(re-ligare) 요소이기 때

문이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총론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변화를 각론적으로 접근하여 신학적 성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하여 주체는 환경의 정보를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그물망을 통하여 포착하고 형성한다. 이는 매우 큰 신학적 도전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고립된 개인을 사회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보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을 통하여 포착된다. 타자와의 리얼한 소통의 자리는 타자에 대한 벼추얼한 정보로 교체가 된다. 타자라는 물리적 존재감은 타자에 대한 기호로 인지된다. 타자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속에서 유입되지만, 타자와의 물리적 교감은 개인의 모니터(individual window) 속에서 디지털 기호로 탈락되고 봉괴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은 우리 문명의 그늘이기도 한 소외된 개인의 외로운 존재양식을 더욱더 가속화 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종교적 인간론의 문제가 매복되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영역과 결부된 수많은 디지털 정보의 영역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분명 신학적 인간론은 휴먼(human)을 넘어 사이버휴먼(cyber-human), 디지털휴먼(digital-human)의 범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절실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장기가 장착된 나의 몸을 나라고 자명하게 인식하듯,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나를 구성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은 아날로그적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지탱하는 수많은 디지털적인 기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안경, 인공관절, 인공심박동기 등등은 우리의 확장된 신체이다. 뜨거운 세포와 차가운 기계는 몸이라는 추상적 범주 하에서 동일한 지위를 차지한다. 크건 작건 우리의 시대는 사이보그의 시대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 관하여 개인의 삶의 양식을 성찰할 때 생활세계와 정보세계의 긴밀한 융합은 극도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휴먼 존재방식과 디지털 존재양식의 공존과 융합의 현상 속에서 신학적 인간론의 정당성을 더욱 더 혼돈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면한다. 몸을 지닌 존재의 감각적 소통의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의거하여 생존하는 존재는 몸이 없는 디지털 영혼(digital soul), 혹은 좀비와 같은 오타쿠로 보이지만, 인간이 물리적 에너지와 정신적 정보의 결합체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인간범주를 확대하는 신인류의 전조일 수도 있다. 분명 몸의 관점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태도와, 정보의 관점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태도 사이의 긴장은 쉽게 수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흥미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말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출현하였을 때 몇몇 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소위 가상교회(cyber church)를 필두로 한 디지털 종교 환경에 대한 큰 기대감과 신학적 전망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물리적 감각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종교적 공간은 급속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예견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디지털 격변에 대한 과잉의 해석이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교회의 현금을 빚의 속도로 디지털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입금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니터 앞에 기쁘게 앉아서 성도들의 교재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

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디지털 ‘정보’에 집중하지 결코 ‘디지털’ 정보에 집중하는 감수성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정보’를 돌파하는 참 생명과 참 휴먼 ‘정보’를 접한다면 분명 인간의 심원한 종교적이며 심미적인 감수성은 후자를 강하게 선호할 것이다. 디지털의 미덕은 광범위한 소통을 위한 압축, 표준화, 감축이라는 의미가 매복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심미적 감수성과 종교적 심연이 쉽게 탈각될 수 있는 디지털 세계는 양각의 정보가 있을 지언정 음각의 울림이 없을 수 있다. 디지털 세계화로의 증폭과 과고 앞에서도 인간은 그들을 둘러싼 메마른 기호들을 넘어 심미적이며 종교적 감수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갈망하고 사유할 것이다.

4) 소셜 네트워크 환경과 교회의 과제

첫째, 교회는 공공적 정보(eine öffentliche Information)가 중첩되는 공간이며 공공적 아젠다를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다. 교회는 어떠한 특화된 이해관계와 사적인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공적 조직(eine öffentliche Struktur)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는 물리적 세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생과 발산의 존재양상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교회는 적어도 현실과 인간의 삶의 정보제공/소비의 과정을 충실히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해야 하는 기초적 과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결코 현실과 사회의 개별적이며 다원적 정보들을 배제한 채 외삽적으로 부여되는 정보를 강요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와 문화와 교회 공동체의 정보생산과 소비의 존재양식을 매우 강력하게 활성화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둘째,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교회는 모든 사회와 문화와 인간의 개별적인 정보의 발산(bottom-up)을 특정한 방식으로 성찰하고 수렴하여 하나의 공공적 정보를 제공(top-down)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교회는 21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교회의 아젠다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과정 이전에, 그를 통하여 세상의 흐름을 읽고 세상과 교회 ‘사이’의 심연을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SNS의 존재방식을 세계와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현실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교회의 메시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만’ 인식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SNS가 오늘의 문명에 주는 공공성의 감각, 신뢰, 소통이라는 핵심을 오히려 교회가 읊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종교적 정보는 세계 내의 정보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유인하고 건들지만 세계에 의하여 내재화되지 않는 미중유의 요소이다. 그 미중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세계 안에서 매 순간마다 펼쳐지는 유리알 유희의 사건을 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학적으로 기독교적 정보가 어떻게 현실이라는 복잡다단한 네트워크의 그물망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신학의 핵심 공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차이, 로고스와 사르크스의 존재론적 차이에 있다. 로고스가 진정 로고스 (정보)라면 그것은 우리와 이 땅과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일방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거칠게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들이 소유한 스마트한 모

바일 미디어로 직접 전송되고 전유될 수 있다면 새로운 미디어 존재방식에 걸맞게 생명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화적이며 기술적인 감각이 요구된다. 수백년 전에 라틴어 미사가 성당에서 사라졌다면, 이젠 성경책이 교회에서 사라지며 종국에는 모바일 기기의 모니터에 편입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의 진화에 걸맞게 한국교회는 교회의 정보 소통과 정보 제공의 존재방식을 혁신적으로 사유하고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⁸⁾

6. 결론 : SNS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물리적 세계의 본성인 분화(differentiation)와 발생(development)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발(emergence)하도록 촉진하는 미디어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지는 않으나 정보의 효과적인 체현, 공적이며 체계적 차원에서 정보의 질적 의미를 수렴하고 평가하게 하는 미디어이다.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자체가 새로운 메시지이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론과 삶의 태도는 개방형, 소통형, 사귐의 존재방식이다. SNS 서비스가 자본주의와 기술이 세련되게 결합되어 등장한 정보 집약적인 상품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개방성에 의거한 생명의 소통방식과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지속적인 연결, 사귐, 연대의 방식을 아주 세련되게 반영한 미디어로 보이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선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요 자선단체의 93%가 페이스북을, 87%는 트위터를, 65%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분명 SNS 그 자체는 우리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직접 말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SNS를 잘 활용해야 한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정보융합 미디어, 1인 미디어, 쌍방향적 소통을 위한 기술혁신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의 혁신이 창발적 메시지의 산출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메시지는 이제 기술이 통제하는 정치-문화-사회적 임계점을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문명과 정신을 창조할 수도 있다. 창발성의 존재론의 빛에서 볼 때 SNS 기술의 혁명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

(2) 폐쇄적 일원성이 아닌 개방적 다원성에 의거하여 방사형으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서비스 환경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기획하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오늘날의 환경에서 에너지-패턴-정보의 규준과 모델에 대한 세심한 신학적 정립을 통하여 도대체 이 시대에서 종교적 메시지는 문화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포착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교회적이며 신학적 아젠다를 전달하는 수

8) 웹 3.0의 세련된 존재양식인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 걸맞게 기장 목회자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소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미리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개신교 바이에른 주교회는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으며, 한국 가톨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자와 가톨릭 평신도를 위한 목회적, 신학적 어플리케이션을 매우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단이 아니라 하나의 내재적이며 자기성찰적인 도전과 질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3) 소셜 미디어와 그 감성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그것 자체가 휴면 감성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휴면이다. 인간이 그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인간에 영향을 미쳐도 인간은 환경을 자신의 방식으로 규율하고 조탁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개념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배후의 심금 정치/경제 헤게모니의 숙주로 얼마든지 퇴락할 수 있다.

현재 소셜 네트워크는 모든 폐쇄적인 네트워크와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내전을 펼치고 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가상이라고 비난한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한다. 아직 이 둘은 공고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소위 개방성과 소통을 지향하는 SNS 정신과 인프라에 관한 현실적 중충의 구조를 면밀하게 해명할 때에만 소셜 네트워크가 지니는 창발적 소통담론의 메카니즘의 의미와 한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세상의 상태는 변화된다(*status mundi renovabitur*). 그렇다면 소셜 마인드는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실로 신학의 기술비판과, 문명비판, 인간비판의 과제는 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4) 그리스도인은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실존이며 교회는 우주적 공동체이다.” 우리가 낯선, 혹은 낯익은 타인의 작은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은 그저 쓸모 없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나와 너 사이(between)에 있지만, 우리 사이를 넘어(beyond) 관통하는 더 큰 마음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 서로간의 사귐과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우주적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흐름에 우리가 편입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든다. 테이야르 드 샤르뎅(Teilhard de Chardin, 1881~1955)은 의식복잡화의 법칙(Law of Complexity-Consciousness)을 말하였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물리적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심화될수록 그에 상응하여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정신도 심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SNS를 교회 선교의 일방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와, 교회와, 신학에게 던져주는 도전에 대한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반응일 뿐이다. 오히려 나에게 말 걸어오는 타인의 작은 목소리들, 교회에게 걸어오는 피조세계의 다채로운 소리들, 피조세계의 아픔들, 신음들, 요구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피조세계의 “창(window)”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문명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던 마르틴 루터 시대에 당대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인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탄생은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중심이 분화되고 다양성의 파고 속에서 자유롭게 흘어지며 해체되어도 중심성은 남을 것이다. 아무리 정보의 패턴이 다양하게 혼재하고 변화되고 소통되어도 생명의 정보 그 자체

(Information Itself)는 여전히 유효함과 정당성을 지닐 것이다. 어떠한 시스템의 발산의 존재방식 안에서도 그 시스템은 거시적으로는 수렴점을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실로 생명의 정보, 생명의 로고스를 변화하는 21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이라는 분화된 세계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연결, 소통시키는 과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신학의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6) 이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SNS 미디어는 진정 메시지인가? 그렇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을 그리워하며 그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의 존재라는 메시지를 세련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깊은 열망에 대하여 SNS는 어떻게 how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술적 환경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에 비해 신학은 우리 인간이 도대체 왜 why 그리고 무엇을 what 만나는지/만나려는지를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를 진실하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로 SNS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타자에 대한 열망”이 진정 “타자를 위한 존재”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찰하고 혁신하고 조력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의 우리 신학의 책임적 태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orrected edition von David Ray Griffin u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Chul Chun,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Alfred North Whiteheads frühe Naturphilosophie (1915–1922) – eine Rekonstruktion*.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Gregory Bateson, *Geist und Natur. Eine notwendige Einheit*. Frankfurt: Suhrkamp, 1982.
-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 Stephen T. Franklin, “God and Creativity: A Revisionist Proposal within a Whiteheadian Context”, in *Process Studies*, Vol. 29, Number 2, Fall–Winter, 2000, 237–307.
-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철학연구』 제86집 (서울: 철학연구회, 2009. 8), 249–274.

Ⅱ 전 철 박사는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 후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 한국신학연구소, 기장신학연구소를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미하엘 벨커 교수로부터 창조성(creativity)에 관한 연구로 조직신학분야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다. 저서는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이 있으며 최근 논문들로는 “화이트헤드의 명제론 연구”, “현대와 기독교사상 : 죽음에 대한 명상”, “초기 안병무가 바라본 서구신학의 빛과 그림자”, “그리스도교에서 바라본 죄의 사회적 의미”를 비롯한 30여 편의 논문이 있다.